불 꺼진 간판 도심 '적막'…불 켜진 주점 실내 '북적'

밤 10시 이후 상무지구 유흥가 가 보니

4~5명 길거리 호객행위 따라가 보니 가게 안은 이미 다른 손님들 있어
"문 닫고 망하느니 과태료 내고 말지" CCTV 단속 대비하며 '비밀 술판'
유흥주점발 확산세 속 불법영업 극성 …광주·전남 올들어 253명 적발

지난 4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집합 금지가 내려지면서 일대 유흥가 간판은 불이 대부분 꺼졌다. 유흥가 일대를 걷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며 호객 행위를 했다. "노래방 영업을 하냐"고 했더니, "당연히 하고 있다"면서 "맥주 마실거냐, 양주를 원하냐", "여성 도우미 원하냐"며 흥정을 시작했다. 이 일대에는 비슷한 호객꾼 4~5명이 남성들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걸고 있었다.

호객꾼을 따라 20m 가량 떨어진 6층 건물로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더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다. 불이 꺼져 있었던 건물 외벽 간판과 달리, 내부는 불이 켜져 영업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부 에는 외부를 살필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어 경찰 등 단속에 대비할 수 있어 보였다. 룸에서는 손님들 이야기 소리, 여성들 웃음소리도 들렸다.

유흥주점 직원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노래는 할 수 없다"며 "여성접객원이 금방 올 것"이라고 했다.

"밤 10시를 넘겼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문 닫고 망하느니 차라리 단속에 걸려 과태료 300만 원을 내는 게 낫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 직원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영업 중"이라며 "단속에 걸린 곳만 운이 나쁜 것"이라고 했다.

광주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적발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특하면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데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비밀 술판'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흥업소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철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통해 검증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지침을 위반해 적발되는 유흥업소들도 급증하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65명(광주 51명·전남 14명)에서 올 8월까지 253명(광주 68명·전남 185명)으로 급증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4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185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는데 따른 피로감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방역 지침을 위반한 데 따라 부담할 과태료가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업소 300만원, 손님 1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다"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는데다, 유흥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역 지침 준수 및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유형으로는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366명, 외국인 등 고용사업장 관련 108명,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15명, 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15명, 서구 소재 유흥시설 관련 10명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사망' 학교 교장 등 3명 징계

광주교육청, 특별감사 벌여 조치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의 학교폭력 사건〈광주일보 7월 5일 6면〉과 관련, 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광산구 A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생활부장에 대해 중징계, 교장과 일반교사 등 2명을 경징계 처분키로 했다. 또 교감과 일반교사 등 4명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생활부장 등은 학폭을 당한 학생의 일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 사례 뿐 아니라 1~2년 전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처리된 점이 발견됐다"며 "학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인식 개선 교육과 신고, 인지를 효과적이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다,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거쳐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 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가해학생 10명은 공동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숲 놀이교실 좋아요 5일 광주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 일원에서 열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첫걸음 유아 꿈동산 숲 놀이교실에 참가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숲해설사와 함께 돋보기를 이용해 자연관찰 놀이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음주운전 단속에 빨리 도망가라고 한 동승자 처벌은?

난폭운전 교사 혐의 무죄…방조 혐의만 유죄

술을 마신 부하 직원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던 직장 상사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걸리면 X된다. 빨리 가, 유턴해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차가 추격해오자 "(가속페달을) 밟아, 밟아!, 빨리 도망가"라고 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은 난폭운전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다.

A(25)씨는 지난해 7월 8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면서 가로막는 의경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이어 경찰차 추격을 피해 3차례의 신호위반, 2차례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3㎞ 가량을 달리다 아파트 옹벽과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동승자인 직장 상사 B(38)씨에게는 부하 직원 차량을 타고 가면서 난폭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교사)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도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B씨가 A씨에게 한 말 등으로 A씨가 난폭운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직장상사이긴 하지만 지시를 절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승용차 운전자인 A씨가 언제든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난폭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에 대해 난폭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방조)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 보길섬 유일한 병원을 지켜주세요"

통증의학과 의원 폐업에 불편
주민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완도 보길도 주민들이 섬의 유일한 통증의학과 전문의원이 문을 닫자, 치료 받기가 힘들어졌다며 도서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자신을 '완도군 보길면에서 전복양식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도서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도군 보길섬 병원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 년 전 보길면에 문을 열었던 전문 통증의학과가 최근 폐업하면서 진료를 위해 뭍으로 가거나 연도교로 연결된 다른 섬으로 옮겨가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7년 전문 통증의학과가 문을 열 때만 해도 바다에서 힘든 육체 노동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앓아온 주민들이 뭍으로 나가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는 게 해당 주민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완도군 마취통증 전문의는 4명으로, 시·군 평균(7.8명)에 못 미친다.

해당 통증의학과 의원은 지난 7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보길면 관계자는 "최근 통증의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4046	1	북구 월동로50, 202동 10층 1009호 [두암동,두암2차무등파크맨션] 59.97㎡	아파트	102,000,000 102,000,000	
2021타경 4145	1	북구 일곡마을로55, 202동 16층 1606호 [일곡동,현대아파트] 59.36㎡	아파트	152,000,000 152,000,000	2021.6.14기준약51만원관리비미납
2021타경 68378	1	북구 동운로213번길21-1, 102동 5층 504호 [운암동,운암아이미소] 50.4709㎡	아파트	126,000,000 12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67214	1	동구 경양로305번길 4-7 단층 45.45㎡ 단층 광 5.88㎡	단독주택	29,293,500 29,293,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동구 산수동 490-34 112㎡ 제시외 단층 가추 등 약2.54㎡[물건번호1:공유자전대영2/13지분전부]	대		
2021타경 68194	1	서구 화정동 839-6 214.3㎡	대	379,486,840 379,486,8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서구 염화로116번길 12-1 1층 96.72㎡ 2층 59.58㎡ 부속 단층창고1.62㎡ 단층변소1.08㎡ 단층창고0.84㎡ 제시외 단층가추등52.3㎡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3821	1	담양군 용면 용치리 산81-5 99174㎡[공유자이상권2/3지분전부.분묘소재여부알수없음]	임야	210,348,000 210,348,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4237	1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84-1 47405㎡	임야	52,145,500 52,145,500	분묘소재여부확인할수없음
2021타경 64826	1	남구 행암동 산79-1 31858㎡	임야	9,718,632,000 9,718,632,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비닐하우스매각제외.분묘소재여부알수없음
		동소 산80 11702㎡	임야		
		동소 산81-1 45521㎡	임야		
		동소 산84-1 25463㎡	임야		
2021타경 66815	1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33-7 660㎡	답	176,353,000 176,353,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이동식컨테이너각매각제외
		동소 933-35 2868㎡	답		
		동소 933-54 257㎡[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21타경 67061	1	나주시 대호동 산69-8 1322㎡[공유자강창민1/2지분전부.제시외수목포함.연고미상분묘3기및석조납골당소재]	임야	24,635,000 24,635,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67726	1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353 159㎡[인접지인322-1번지와경계구분없이일단지이용]	대	6,932,400 6,932,400	
2021타경 69036	2	곡성군 입면 삼오리 129 545㎡[지상에타지번건물이일부침범되어있음]	대	24,525,000 24,525,0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
[자동차,중기]					
2021타경 3357	1	사용본거지:동구 남문로 635 [소태동] 등록번호:02구1769 차명:싼타페[감정평가서참조] 연식:2018	자동차	19,000,000 19,000,000	보관:광주광산구상완길314-16,㈜상완컨테이너하우스[070-4102-5929]
2021타경 70623	1	사용본거지:광산구 임곡동 하림길 158[임곡동] 등록번호:02수6748 차명:쏘렌토[감정평가서참조]	자동차	27,000,000 27,000,000	보관:광주시광산구상완길314-16[제3자[주]수완텐테이너하우스에게보관.연락처:070-4102-5929]
[기타]					
2021타경 3326	1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306-1 단층[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56.84㎡[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음] 제시외 주유기등9식, 단층차양등142..2㎡	주유소	224,824,840 224,824,8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그중1점소재불명,감정평가서참조]
		동소 306-1 860㎡[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음]	주유소용지		
		동소 308-7 285㎡ 제시외 단층 창고 등 12.3㎡[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음]	주유소용지		
2021타경 4572	1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41-17 3620.7㎡[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음]	공장용지	1,035,336,700 1,035,336,700	일괄매각.제시외기계기구매각포함.매수인은산업단지입주계약시영광군허가[식료품 관련업종만]요[첨부된사실조회서회신참조]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10 [제1동] 1층 냉동창고,공장 640㎡ 2층사무실 113.7㎡ 제시외 냉동시설등2식[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음]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10. 20.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10. 27.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